

#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탄력'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적격' 판정...2023년 개장 목표 군산항 인근 22만4000㎡...고용창출 1000여명·경제효과 연간 228억

군산시가 군산항 인근에 추진하는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행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된 뒤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조만간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함께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행정절차 기간 단축에 힘써왔다. 그 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수시로 추진해 이번엔 통과했으며,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해 당초 계획된 일

정에 차질이 없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지난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위기대응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다. 군산시는 오는 2023년 4월 개장을 목표로 군산항 일원 22만4000여㎡(약 6만8000평) 부지에 10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수와 수출용 중고차를 비롯해 중고 건설기계·농기계·특장차 등을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수출복합단지로 조성한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중고차 수출 상사를 비롯해 중고차 정비·튜닝·부품 공급 등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게 돼 1000여명의 고

용 창출과 연간 228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군산항 자동차 수출 물동량도 2만대 이상 증가하는 등 침체를 거듭했던 군산항 물동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판기 군산시 항만해양과장은 "이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경제 및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서래탐방지원센터~벽련암 구간 내장산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래탐방지원센터에서 벽련암 구간 2.8km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탐방로 예약제는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15개 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이다. 내장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서래봉 일원은 노랑뿔 등 멸종 위기종 자생지로 보호가 필요하고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탐방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용 인원은 평일 600명, 주말·공휴일은 1000명으로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국립공원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탐방객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예약자가 미달하면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현장 접수한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90회 맞은 남원 춘향제, 코로나에도 명맥 잇는다

### 내일 무관객·온라인 개막...춘향제향 등 3개만 진행

올해로 90회를 맞는 남원시 대표 축제인 '춘향제'가 명맥을 잇는 수준에서 초미니 축제로 치러진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춘향제추진위원회는 10일 개막하는 '제90회 춘향제'를 사상 처음으로 무관객,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전환해 진행한다. 프로그램도 최소화했다. 취소된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춘향제 추억 공모전', '춘향제 로고송 이벤트' 등 시민 참여 이벤트다. 46년 역사의 춘향국악대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명창 등용문 가운데 하나로 춘향제의 대표 행사라는 점에서 당초 축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져 결국 추석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시민 참여 이벤트는 지난날 초 사상 최악의 수해를 당한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춘향제는 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뮤지컬 공연 '춘향은 살아있다' 등 3개 프로그램만 진행, 단출하게 열린다.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 '춘향제향'은 10일 오전

10시 광한루원 춘향사당에서 개최된다. 춘향선발대회는 방역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지난날 15일 1·2차 예선을 거쳤고,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전합숙은 취소했다. 대신 개인별 심층면접을 더욱 강화한다. 결과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90주년을 기념해 대표 브랜드공연 뮤지컬 '춘향은 살아있다'를 선보인다. 당초 뮤지컬 공연 등에 100명 안팎의 관객을 입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의 관객 입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춘향제 유튜브 채널 '남원와락'을 통해 생중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국내 예술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하는 축제로는 점을 고려해 전면 취소 대신 최소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명맥을 잇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제90회 춘향제가 사상 처음으로 무관객,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10일 남원시 광한루원 춘향사당에서 개막한다. 사진은 제89회 춘향제 춘향제향. <남원시 제공>

# 고창군, 취약계층 77가구 집수리 본격 추진

고창군이 올해 주거급여를 받는 77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집수리 사업은 고창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기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 구조 노후도(구조안전·설비상태·마감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금액과 지원 주기는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으로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모든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수범위에 따라 올해 ▲대보수(지붕·육실·주방

개량 등) 14가구 ▲중보수(창호·단열·난방공사 등) 13가구 ▲경보수(도배·장판 등) 50가구를 선정했다. 고창군은 지난달 말까지 올해 목표가구 중 45세대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세대는 다음달까지 마칠 계획이다. 고창군은 또 최근 집중호우로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3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들 가구를 긴급보수가구로 선정해 이달 중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4월 공사 진행을 위한 사전조사가 다소 지연됐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연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이 주거급여를 받는 취약계층 77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 <고창군 제공>

# 익산시, 청년·신혼부부에 임대주택 1300가구 공급 주변 시세의 70~85% 수준

익산시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오는 2025년까지 1300세대의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익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 10개 단지 4921세대 중 1300세대를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공급가는 주변 임대시세의 70~8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심의 때 소형평수(15평 이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법적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특별공급을 확대하도록 사업자에 권고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해 젊은 층의 자립 및 정주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